



사제의 마음

언젠가 농담으로 “저는 신부(神父)이고 여러분은 신자(信子) 아닙니까? 그러니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신부를 아버지처럼 공경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한자로 信者이지 信子가 아니고, 더욱이 神子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듯이 저도 神父라고 불리지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아마도 신부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느님 아버지를 닮아서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목자가 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차라리 신자라면 조금은 덜 무거운 십자가 일 텐데, 신부라고 불리지는 십자가의 무게를 저를 고개 숙인 아버지처럼 되게 합니다. 저는 신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생 때, 은사 신부님의 축하식에서 “저희들이 축가로 어떤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으시겠습니까?”하고 여쭙었을 때, 은사 신부님께서 그 즉시 ‘사제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마음속으로 다른 노래들도 많은데 왜 ‘사제의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부를 위해 불러주는 이 노래가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지를 깨달아 갑니다.

**사제의 맘은 예수 맘 우리를 애써 돌보시며
어디서나 길 잃은 양 주님께 인도해 주시네.**

**사제의 맘은 예수 맘 인류의 고통과 번민을
기꺼이 받아 지시고 주님의 십자가 따르네.**

**사제의 맘은 예수 맘 가난한 형제들을 찾아
복음 말씀 전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네.**

비록 저는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족한 신부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자인 우리 교우들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량리 본당 신자들이 어느 본당의 교우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느님을 잘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우이기를…….

더 좋은 것, 더 바른 것을 보고 듣고 누려서
제일 멋들어진 우리 교우들이기를…….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우리 본당 교우들이
제일 잘한다는 칭찬을 듣기를…….

다른 이들이 우리 공동체를 부러워하며
본받으려고하기를…….

우리 본당이 제일 행복한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를…….

부족한 아버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늘 새롭게 생각하고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교우분들께 감히 ‘사제의 마음’
청합니다.

**오! 착한 목자 예수여 네 사제를 축복하사
거룩하게 하시옵고 네 사제 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시옵고 네 사제 되게 하소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라파엘 신부



사진으로 보는 본당 설립 60주년(2015년)



제19대 사목협의회 피정(6월 27일, 우이동 명상의 집)



60주년 기념 장미축제에서 앤젤사랑(원년 멤버)·엔젤·글로리아 연합성가대의 대합창(9월 19일)



60주년 기념 장미축제에서 행복대학 학생들(9월 19일)



60주년 기념 성경 필사본(43명)(10월)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성된 성체조배실(10월)



60주년 기념 건전성사(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 집전)(10월 9일)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새로 단장한 기념관 및 기도의 벽 축성(10월 9일)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새로 단장한 기념관 축성(10월 9일)



1960년에 제작되어 예전에 본당에서 타종하였던 종을 60주년 기념으로 수리, 복원하여 축성(10월 9일)



모범학생 후원을 위한 60주년 기념 바자회(11월 1일)

장미 축제를 마치고



장미가 꽃망울을 터트릴 무렵 우리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본당 설립 60주년을 뜻 깊게 지낼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라는 특명이 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엔젤성가대 음악회를 조금 규모를 늘려 해볼까 하던 느긋한 심산이었는데, 신부님의 권유로 <장미제>의 부활로 확정되었다. 처음에는 엔젤성가대도 있고, 교사회도 있고, 청년연합회도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도 전문가가 아니기에 기획, 준비부터 순조로움은 우리와 거리가 멀었다. 안개가 자욱하여 가닥조차 잡히지 않고 혼돈은 심해졌다.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의견들... 회의는 거듭되고, 길어졌다. 그래도 그 중구난방의 의견들이 모아지니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다.

장미제의 출연신청을 받으면서 옛날의 엔젤 사랑성가대가 장미제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성가대의 출연을 타진하였다. 그런데 너무도 흔쾌히 출연을 결정해 주셨다.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이라니, 아니 그 때 우린 구명보트를 잡은 기쁨이었다. 그 선배님들은 출연뿐만 아니라 장미제에 대한 여러 조언까지, 게다가 필요한 물품까지 대여해 주셨다. 출연 팀들이 정해지고 가닥이 잡히자, 그 한여름의 더위도 아랑곳 않고 성당의 열기는 더욱 올라갔다.

성당의 제대(祭臺)라는 제한된 무대이기에 조명, 무대장치, 음향을 모두 정비해야 했다. 새로운 조명을 구입하고, 기존 조명은 손을 보고, 조명할 전기배선을 설

계하고 깔아야 했다. 기술자는 없고 외주로 맡기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하지만 우리에게 비전무가도 못치면 프로가 되는 시설부와 라우레스시회가 있었다.

청년연합회장 대행, 총무, 반주자, 출연자, 1인 4역을 해내는 아름다운 이진선 카타리나가 있고, 노익장을 과시하며 지하 강당을 달구는 귀여운 노인대학(행복대학) 학생들이 계시고, 여름캠프 일정과 교리, 학업, 직장으로 눈코 뜰새없는 청춘임에도 락밴드를 결성해 준 교사회가 있었으며, 아빠들은 아빠들대로,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성당 곳곳을 연습으로 채우고 있었다. 사랑성가대의 열정은 가히... 너무나도 열심이었다. 사방에서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은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이 여름까지 마른 장마로 이어지면서 뻑뻑하기 그지없는 이 땅을 뚫고, 그래도 꽃을 피우려는 성당 울타리의 장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장미꽃망울들이었다.

그리고 그 날, 그 약속의 시간, 정작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대성전의 자리는 절반이 비어있었다. 어김없이 시간에 맞춰 무대에 조명은 들어오는데... 그 때 우리는 보았다!! 갑자기 신자들이 몰려들어 대성전을 꽉 채우고 2층 성전까지 빼곡히 채워지는 광경을. 자모회의 오프닝 무대로 시작된 장미축제는 사랑성가대의 사랑의 선물, 팔십이 넘으신 분들의 시냇물과 흥겨운 춤사위, 청장년의 패기 넘기는 합창과 중창, 락, 보컬, 색시하고 감쪽 발달하고 풋풋한 학생들의 춤, 여섯 살 짜리 아이까지 그동안의 모든 열정과 정성을 여과 없이, 아낌없이, 아주 훌륭하게 연출해 주었다.

청랑리성당의 모든 에너지를 마음껏 뿜어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60주년이란 굵고 긴 줄기를 튼튼히 의지하고 한껏 꽃을 피워내는 장미의 꽃밭이었던 것이다. 장미 증정과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 되는 시간, 나는 눈이 뜨거워지면서, 나의 주님에 대한, 우리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찬미가 넘쳐 나왔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행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쏟아부어 주신 신부님과 선배님, 신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신앙심, 그리고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면을 빌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청랑리성당 공동체를 지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축제가 앞으로 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김학우 즈가리아

신학생의 군생활 체험기

+ 찬미예수님

제가 군에 입대할지 21개월이 지나 작년 12월 3일 전역하였습니다. 군에 있는 동안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복무동안 제가 신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느꼈던 일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군복무 했던 지역은 우리나라 최동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이었습니다. 특히 저의 부대는 비무장지대에 있었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호송하는 부대였습니다. 부대병력은 50명 내외이고, 모두 선발된 인원이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생활관 시설이나 전우들 모두 만족스러웠지만, 한 가지 힘든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지역의 특성상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군생활동안 한 번도 성당에 가지 않은 냉담신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멀어지나 싶던 순간, 군대 동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친구는 사회에서 성당을 조금 다니다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주교 교리를 더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먼저 다가와서 저에게 교리를 알려달라는 그 친구를 보며 저는 제가 부대에서 스스로 신자들을 모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함께 기도할 사람을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주일마다 그 친구에게 교리를 알려주었고, 미사를 드릴 수 없었기에 함께 공소예절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하게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그 친구가 주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해도 되느냐고 하는 전우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대에 있는 전주교 신자들을 확인해 본 결과 부대에는 전주교 신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함께 하자고 하였습니다. 기도모임에 온 병사들은 “주일에 미사를 드릴 수 없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이런 성경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

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저는 또 한 번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근무에 지치고 피곤해서 이번 주일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미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같이 기도하자는 병사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처음으로 2명으로 시작했던 기도모임이 어느덧 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리교육이 끝난 후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는 전역을 하게 되었으나, 지금도 저희 부대에서는 제 후임이 기도모임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1개월의 군복무기간은 저에게 한편으로는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제 곁에 항상 하느님께서 같이 계신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상호 요한 마리아 비안네

60주년 기념 화보집을 준비하면서

〈60주년 기념화보집〉이란 본당 60년의 각종 사진 및 동영상의 모음집이다. 나는 그 중에서 사진으로 보관되었던 것을 스캔하여 저장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모아졌던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아직 정리 중이긴 하나 50주년을 위해 준비하였던 많은 사진자료가 있어 무척 도움이 되었다. 60주년 기념 화보집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필연이나 우연히 이루어진 사실을 삽화삼아 그려보고자 한다.

2014년 중반 즈음, 신부님께서 기념관에 전시할 본당 역사를 정리해보자 하셨을 때만 해도 60년간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이 무척 막연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 발간한 〈본당 사반세기사〉에는 1955년부터 1980년까지 역사가 울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사진, 글 모두가 완벽하였다. 이 기록을 정리한 선배님들에게 감사의 드린다. 본당의 설립에 많은 어려움과 희생, 그리고 노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역사는 회생의 축적인 듯하다.

우리 청랑리성당은 특이하게 위치를 옮긴 본당이다. 단기 4288년(소위 쌍팔년. 한국전쟁 직후의 어려움에 대한 상징적 표현)에 청랑리로타리 옆 성바오로병원 앞에 본당이 설정된 후, 어쩔 수 없이 옮겨야만 할 사유가 발생하여 성바오로병원에 그 터를 팔고, 1988년(다시 쌍팔년. 올림픽의 해로 우리나라가 세계로의 웅비를 자랑)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 축성하였다. 현재의 본당 터는 초대 라우렌시오 신부님께서 이승녕 박사(부인 이종희 글라라) 님의 응접실을 빌려 제대를 꾸며 첫 미사를 올린 장소라니, 우연치고는 참 오묘하다.

참고로 〈사반세기사〉는 1980년에 발간한 책자이니 본당 옮기는 얘기는 없다. 첫째, 쌍팔년 사이의 기간 33년. 기억나는 숫자이지 않는가? 더 이야기하면 지나치다는 지적이 미리 염려되어 아쉽지만 접는다. 둘째, 1981년에 새로 지어 축성한 멀쩡한 철근벽돌조 성당을 할어야만 할 까닭이 있어 팔아야만 했고, 그래서 옮긴 곳이 첫 미사터라니. 설정의 해인 1955년에는 누가 알았겠는가? 오직 하느님만 아시겠지. 미사를 드릴 때 신자 분 누군가가 앉은 자리는 첫 미사 때 제대가 놓인 자리일 것이다. 본인이 앉은 곳이라고 상상해보시라. 감격할진지.

다음 삽화는 다음 때였으니 2015년 8월 초순 어느 날 해질녘이었다. 성당에서 화보집을 만들기 위한 스캔작업을 하다 문득 박재신 필립보 형제님 생각이 났다. 나는 박형제님에게 전화를 하여 화보집 제작에 대해 설명을 하며 가진 사진을 내놓으라고 마치 빗장처럼 사진 수첩에 대해 얘기하였다. 박형제님 부부는 본인들만이 아니라 모두 부모님들이 청랑리에 오려 사셨으며, 모두 신자이셨고, 신심도 돈독한 분들이셨다고 들어서이다.

성품이 너그럽고 신앙심이 두터운 형제님은 항상 협조적이어서 그날도 오랫동안 통화를 하는 중 자매님을 바꾸어 주었다. 자매님은 과거에 본당에서 젊은 시절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스윙커피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과거 본당에서의 활동 사진을 얻고자 하는 내 의사를 전달해 주셨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계시니 쿡이라는 음식점으로 와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사진을 많이 얻을 욕심으로 갔는데, 가보니 엔젤 사랑성가대 모임인 1980년경 활동한 분들

로서 지금은 본당에 교적은 없으나 격월모임으로 옛 정과 추억을 잊지 않고 SING ALONG 등을 통해 교분을 유지하는 보기 드문 모임이었다. 그 분들의 환대 속에 기억에 남는 좋은 모임을 나누며 생각해보니, 마침 기획 중인 본당 6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초청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매님의 의견을 들어보니 언니들에게 여쭙어보아서 동의하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답이었다.

60주년 행사 TF팀의 일원인 나는 다음 회의에서 그런 분들의 존재를 장미축제 준비위원장인 김학우 스가리아 형제에게 알렸다.

장미축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콘셉트로 정리되어 성행리에 잘 치루어졌으며, 그날 취재를 나온 평화신문의 이 힘필로메노 기자도 그런 모임을 보고 좋은 인상을 받아, 다른 본당에서도 그리 하도록 소개하겠다고 하였다. 화보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0주년의 큰 행사로 복원된 장미축제에 우연히 과거라는 한 주제의 동인을 제공했다는 점이 기쁘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낫다!

참, 정작 화보는 없고 시대에 맞게 외장 하드만 있음을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본당이 역사는 축적되어 간 것이다.

60주년 행사가 끝난 2015년 11월 맑은 날.

김석종 라파엘



묵주기도 묵상에 대하여

아침에 출근하면서 성호경을 긋고 첫 기도으로, “자비하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로 시작하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매일미사 기도문을 다운받아서 생활기도(아침)를 드린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묵주기도를 바친다. 버스 안에서 묵주기도를 드린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묵주기도를 드리게 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내 핸드폰에 기록하기 시작한 날짜가 2014년 7월 21일이니, 그 두 달 전 부터였을거라 추측된다.

어느 날 우연히 성물방에 갔다가 〈묵주기도로 드리는 9일기도〉 책을 샀고, 1단 묵주를 손에 쥐게 되었다. 20년 이상 냉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묵주기도를 안 한지 적어도 20년 이상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희망방(예비신자 교리실)에서 묵주기도를 시작하였다.

묵주기도 중간에 울컥거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묵주기도를 마치고나서 성모님께 이렇게 부탁했다 “성모님, 묵주기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무사히 청원기도 27일, 감사기도 27일을 바칠 수 있었다. 54일간의 묵주기도를 마치면서 성모님께 개인적인 일들을 - 가정의 고민, 내 자신의 신앙적 문제 등을 - 성모님께 청하고 싶었다. 마음속으로는 간절했다.

그리고 나서 성모님께 또 다시 청했다. “어떤 지향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 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지향으로 성모님께 청하고 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그 가족들, 배고픔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전쟁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은혜, 치유와 나눔과 평화를 위해 청원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 청원기도와 감사기도는 기도드리면서 조금씩 다듬어졌다. 지향을 마치고나서는 “성모님 도와주세요!”한다.

2015년 10월에 생활성서 관련 수녀님들께서 청랑리성당을 방문하여 홍보하고, 서적을 판매할 때에, 책을 고르던 중에 우연히 김보록 신부님의 〈묵주기도 묵상〉이라는 책을 보게 되어 그 책을 샀다. 책을 이틀간에 다 읽고, 지금은 묵주기도 전에 조금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 단 신비의 묵상)을 차례로 읽고 묵상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친다. 가끔은 못할 때도 있다.

아마도 “성모님 도와주세요!”에 응답하신 것 같다. 그 이유는 김보록 신부님의 책을 읽고 나서야 나의 묵주기도가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김신부님의 〈묵주기도 묵상〉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묵주기도는 ‘구도’와 ‘염도’가 가장 아름답게 조화된 기도라고 한다. ‘구도’란 일정한 문장으로 정해진 기도문을 외우는 기도이고, ‘염도’란 일정한 문장으로 정해지지 않은 내심의 기도 또는 침묵의 기도이다. 묵주기도는 바로 일정한 기도문을 되풀이하여 외우면서 주님의 구원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이다. 따라서 묵주기도를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바칠 때 각 단의 신비 내용을 진정으로 묵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환의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라고 한 후,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외

우는 동안에 일체 다른 생각이나 다른 묵상을 하지 말고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 신비만을 묵상해야 한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묵상하고 바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아무 생각이나 묵상도 하지 않고 외워 버리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세운 지향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바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픈 어머니를 또는 아들의 시험 합격을 바라고 시험 결과를 이리저리 상상하면서 바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지향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세우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묵상 중에 생각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분심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책을 전신자가 읽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묵주로 드리는 9일기도〉와 틈틈이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다.

자비하신 하느님, 제가 이 글을 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시는 청랑리성당 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소서. 아멘.

유창훈 마카엘



* 2016년 본당 시목목표 *

성경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여 생활화 합시다
 평일미사를 자주 참여합시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합시다
 용서하고 화해합시다

신부님과 함께 자전거 성지순례



2015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청량리성당 아빠들의 모임인 라우렌시오회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성지순례를 하는 자전거 피정을 하였다. 작년에 시작된 자전거 피정은 1회 마재성지를 시작으로, 2회 행주성당,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수원 교구 소속의 구산성지를 순례 장소로 선택하였다.

어린이날 아침 8시에 성당에 집합하여 신부님으로부터 자전거로 이동할 때의 주의사항을 간단히 교육받고, 환송 나오신 수녀님들과 성당 식구들의 배웅을 뒤로 하고, 신부님, 아빠들, 교사들, 어린이들까지 모두 16명이 안전을 위하여 어른들과 아이들이 짝을 지어 하나둘씩 출발하였다. 하늘은 오늘 자전거 피정을 반기리라도 하듯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선사해 주어서 더없이 청명한 날씨 속에 왕복 60km의 여정을 쾌적하게 달릴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마장동에서 자전거길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으며, 살 곳이다리를 건너 성수대교-영동대교-청담대교를 거쳐 올림픽대교 아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페달을 돌려 잠실철교 옆 자전거도로를 통해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푸른색의 한강을 바라보며 다리를 건넜다.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스페인 출신의 신부님(한국명 : 이낙희)을 만나 잠시 인사와 담소를 나누었다. 이낙희 신부님은 라파엘 신부님과 친분이 있는 분으로 한국어학당에서 공부를 하셔서인지 우리말을 꽤 잘하셨고 아이들과 간단한 대화를 재미있게 나누셨다.

이 신부님이 합류한 우리 일행은 다시 출발하여 천호대교-미사대교를 지나서 목격지인 구산성지에 도착하였다. 도착하자마자 찜땀, 샌드위치, 김밥, 과일 등으로 허기진 배를 채

우고, 아이들은 장난을 치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아빠들은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휴식 후에 신부님의 안내로 구산성지를 둘러보았다. 구산(龜山)은 마을을 둘러싼 산이 거북이 같다고 하여 불리게 된 것이며, 이곳은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순교자를 탄생시킨 거룩한 성지이자 유서 깊은 사적지이다. 양반가에서 태어난 김성우 성인이 신앙에 입문한 것은 1830년이며, 중국인 유방제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한동안 유신부를 모시고 회장직을 수행하며 친척과 이웃들을 입교시켜 이 지역을 교우촌으로 만들었다. 1836년에는 모방 신부가 입국하자마자 자기 집에 모시고 우리말과 조선의 풍습을 알려주기도 했다. 1839년 기해박해 때에 체포되었다가 간신히 풀려난 성인은 1849년에 다시 가족들과 함께 붙잡혀 갖은 고문을 당하고 이듬해에 47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이곳은 성인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오며 묘소를 보존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박해시대의 지취가 원형대로 남아 있는 곳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며, 전통적인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200여년 간직하고 있는 귀중한 교회이자 순교의 열이 살아있는 곳이다.

감명 깊은 순례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서로 격려하며 다시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몸도 지쳤고 날씨도 더울 정도인데도 돌아오는 초반에 긴 오르막 코스가 있어서 숨이 턱에 차오를 정도로 힘들었지만 한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가지고 오늘이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당으로 다시 돌아왔다. 자전거 성지순례를 이끌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모두 집으로 향하였다.

김태진 요한 크리소스토모

변화

내가 변화하면
 가정이 변화하고
 공동체가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합니다.



가정이, 공동체가,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변화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게인원 도미니코



충실하고 슬기롭게 깨어있는 삶을 위하여



본당 설립 60주년의 해에 세례성사를 받은 새 영세자들(2015년 9월 12일)

미사 때마다 마침 예식을 하면서 복음을 실천하고 평화를 나누자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미사를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어떠한가? 한번쯤 뒤돌아보면 대답한대로 열심히 실천하는 교우분들도 많겠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며, 저 역시 입으로만 하는 편이고 실천이 부족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래 전에 꾸리아 단장으로서 봉사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선종하신 오 막달레나 브레시디움 단장님은 어려운 이웃과 단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이 30여년간 레지오 활동을 하였지만 아직 한사람도 영세를 못시켰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많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는 6년간 꾸리아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명의 영세 또는 견진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느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평화롭게 선종하시어 하느님 나라

에 가신 분도 있고,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박을 알 수 없는 분도 있고 아쉽게도 냉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가 되어주는 것이 좋은 일로 생각하여 늘 수락하였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성사 때에 대부로서의 역할을 성령님께 약속한 것이 형식적이었으며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냉담자와 행불자 대자님들을 찾아서 회두하도록 노력하여 성령님께 약속드린 영적 대부로서의 역할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년 만에 네 사람을 예비신자로 인도하여, 한 명은 중도 탈락하고 세 사람의 새 영세자가 탄생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단 사를 만에 인도가 된 분도 있으나,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 분도 있습니다. 이 분은 저에게 한숨도 주었지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주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태어났습니다. 이 분은 주일에도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하는 떡방앗간을 운영하였기에 교리공부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3년에 교리공부를 시작한 이래 13년 동안 4수 끝에 개근상까지 받으면서 교리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2015년 9월12일 저와 같은 세례명(도미니코)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는 본인의 노력과 인내, 이웃과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성령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하였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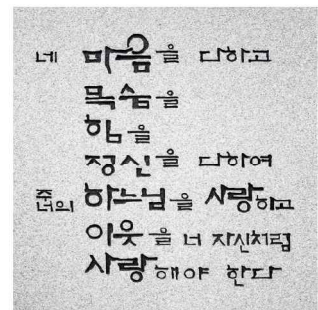
세례식은 끝났지만 대부로서의 역할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하고, 새 영세자를 지속적으로 돌보기 위하여 생각한 것이 신심단체에 가입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임신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하시는 레지오 단체를 선

택하였습니다. 청량리성당 최교령자(95세)인 이 루시아 자매님이 속하고 적 스테파노 단장님이 이끌고 있는 ‘자비로우신 어머니 브레시디움’에 들어가 9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기도하며 행동단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영세자들이 세례 받은 후에 냉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세례식만 끝나면 관심이 부족하고 교우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청량리성당도 예외 없이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는 이 시기에 이르신들에 대하여 사목위원회 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항상 슬기롭고 깨어있는 삶을 일깨워주시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저의 가정을 축복해주시어 30여 년 동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오채균 도미니코



하느님을 찾게 된 동기

선교활동에는 연도가 제일

강원도 영월에 사시던 저의 누님은 원래 불교도였는데 천주교로 개종하여 면소재지의 공소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화환 하나 없고 영정 사진만 달랑 걸려있는 초라한 선바오로병원의 장례식장에 청량리성당 교우 분들이 오셔서 생전에 알지 못하는 고인에게 연도해 주시고 다불산 장지까지 오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무종교였는데 어느 때가 되면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2001년도 어느 날, 부천에 살던 저는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고 누구의 권유도 없이 자발적으로 청량리성당을 찾아와 어느 모르는 분께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침 오늘이 교리 첫날 첫 시간이니 잘 오셨다고 하면서 바로 교리실로 안내를 받고 교리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천에서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아서 개근상을 받고, 2002년 6월 1일 영광스러운 영세를 받았습니다. 선교활동을 하시는 어느 형제님께서 1구역에 편입시켜 아버지 모임에 참여하게 하고, <하늘의 문 Pr.>에 입단시켜서 지금까지 레지

오 활동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민음의 샘 Pr.>의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다

부천에 살면서 새벽 4시에 서초구의 직장으로 출근하고, 화요일 오후 6시에는 <하늘의 문 Pr.> 회합에 출석하고, 주일에는 본당 미사에 참례하는 저를 하느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2006년에 아들이 사는 미아동도 가깝고, 청량리성당이 가까운 월곡동에 평생직장인 빌딩관리소장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현재 78세인 저에게 직장을 갖게 해 주시고 많은 교우 형제자매님들과 인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레지오활동을 하고 있으니, 신앙생활이 즐거워 외로운 뒷방 늙은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뇨도 고혈압도 만성 지병도 없는 건강을 주시니 주님의 은총으로 믿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뜨거운 고통의 경고 내리심

성소후원회, 군중후원회, 작은 예수회 등에 수년간 납부하던 회비도 중단하고, 성가복지병원후원회도 가입하겠다고 신청서만 받아놓고 가입을 미루고, 교만하여 신앙생활도

게을리 하였습니다. 그러던 두 달 후에 뜨거운 물 한 양동이를 들고 가다가 문지방 앞에서 넘어지면서 뜨거운 물이 오른팔에 쏟아져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비 조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다가 치료비가 백만원 이상 들고, 뜨거운 시련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사랑의 나눔을 베풀 줄 모르는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통회합니다. 저는 일시 중단하였던 후원회비를 모두 되살렸습니다.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사오니,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를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지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김상배 아우구스티노

나눔 실천 사랑

2014년 성 라우렌시오 축일을 맞으면서 본당 추천을 받은 어르신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도 계획도 없이 방문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였으며,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방문해 주신 나눔의 목상회 회원님들이 계셔서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십 오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남매를 키우기 힘들어 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구십이 다되신 어머니는 몇 년 전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시며, 형제님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쳐서 2년째 일을 못해 수입이 없으며, 아들과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머니의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나눔의 목상회 회원님들과 몇 번 방문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토의를 시작한 것이 그 해 10월이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병원비였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는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과 골절의 후유증으로 가끔 입원치료를 해야 하고, 형제님은 교통사고로 인한 머리의 충격 때문인지 알츠하이머라는 병명으로 신경 정신과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목상회에서 토의한 결과, 지속적으로 그 집을 방문하면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찾았으나,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로 몇 번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 사회복지담당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니, 사회복지사는 “대체 무엇을 도와달라는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이 계속되는 병원비 지출로 생계에 위협을 느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간곡히 부탁하여, 2015년 2월부터 차상위계층 가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3월에는 형제님의 종합 검진결과로 알츠하이머를 확인하였으며, 4월에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흥릉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을 찾지 못해 하루 종일 헤맸다는 말을 듣고 길을 잃었을 때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치매인식표를 신청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문만으로도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경찰청에 등록하였습니다. 5월에는 차상위계층 가정에 많은 할인혜택이 있음에도 가족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에 각종 공과금(전기, 전화, 수도, 가스, 건강보험 등)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드렸습니다. 7월에는 어머니가 골절의 후유증으로 바닥에 앉지 못함을 알고 장기요양센터에 의뢰하여 이동식 변기, 목욕의자,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서비스 받아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할인 혜택에 의해 지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안정이 되어가는 8월 즈음에 이 분들이 미사 참례를 못하고 있음을 주목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형제

님은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방향 감각이 없어 안절부절 할 때도 있고,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다니기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봉성체를 권유하고 매일미사 책을 갖다 드리며 매일 읽어 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요즘은 주일미사에 참례하고 계십니다.

9월 8일 아들이 군에 입대해서 많이 허전해 하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수입 또한 줄어들기에 나눔의 목상회에서는 자판기 수익금 일부를 떼어 조금씩 도와드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절약하며 매사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그 가정을 보면서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김순심 율리아



새로운 생명문화를 위하여



생명의 복음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인간들에게 구원의 빛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한 아기의 탄생’은 기쁜 소식으로 선포됩니다.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루가2,10~11)

따라서 메시아 탄생에 따르는 기쁨은 모든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토대이며 그 완성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요한 16,21)

2015년 5월 24일, 청량리성당에서 임산부 축복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임신부님의 기도와 은총의 선물을 받은 일곱쌍의 부부는 주님의 신적인 생명을 함께 받는 영광을 체험하였습니다.

신부님은 태어날 아기들이 입을 배젓고고리와 출산 준

정은 신체적인 불편함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비 부모가 되는 신앙인은 어떻게 주님께 은총을 구해야 할까요?

아이를 임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모든 순간이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출산은 심한 감정기복과 끝없는 육구, 도피만큼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렵게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도 쉴 새 없이 울어대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동시에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너무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량리성당 생명분과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 모든 인간적인 부족함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문은 서울대학교 생명위문회를 통해 준비하였으며, 예비 부모와 형제, 자

비를 위한 기도문 모음집(① 임신 을 감사드리는 부부의 기도, ② 태아를 위한 기도, ③ 태아를 위한 엄마의 기도, ④ 태아를 위한 아빠의 기도, ⑤ 이른둥이의 부모를 위한 기도, ⑥ 할머니의 기도)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신부님의 안수 기도로 일곱 부부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열렘과 기쁨을, 교우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부모의 의무감 또는 사람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고 다짐하지만, 이 모든 과

매, 조부모님 등 모든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생명의 경축은 가정에서 시작되며 부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진 생활은 생명의 선물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이며 또한 영웅적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성모님, 요셉 성인께서 이루셨던 성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실천적 모델을 발견하고 그 모범을 따라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하느님을 찬미하고 온 세상에 생명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재환 대건 안드레아

청량리성당 늘푸른소식

발행인 주임신부 이계철 라파엘

편집인 기획홍보분과

인쇄 (주)금하기획

창간 2013년 12월 31일

주소 동대문구 홍릉로8길 14번지

전화 02-966-6760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laurentius

2015년 주일학교 행사



여름캠프, 서해 천수만수련원(8월 5일~7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서해 천수만수련원으로 2박3일간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중고등부 학생까지 약 5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당설립 60주년기념 장미축제(9월 19일)

초등부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한달동안 열심히 장미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유치부와 1·2학년은 울동, 3·4학년은 치어리딩, 5·6학년은 합창, 그리고 교사들은 밴드공연을 하였습니다.



견진성사(10월 9일)

본당 설립 60주년의 해에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의 집전으로 견진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총 66명 중 청년·학생 34명이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성탄예수제(12월 26일)

초등부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기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한 성탄예수제가 열렸습니다. 율동, 댄스, 합창 등 다양하게 꾸며졌습니다.

베트남 며느리가 드리는 편지

찬미예수님! 청랑리성당 신부님과 수녀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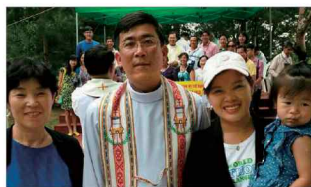
그리고 저의 친정인 베트남 빈흥성당 성전 건립 기금에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늦게나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빈흥성당은 많은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계획보다는 좀 늦게 완공 된다는 소식입니다. 공사기간이 늦어진다는 걱정보다 온 정성을 다하시며 성전 건립에 수고하고 계실 호민 뚝언 바오로 신부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로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은 하느님께서 완성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베트남 빈흥성당 신자분들과 저희 친정 부모님, 저희 오빠는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는 날에는 청랑리성당 신자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딸 유다는 아녜스와 저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 가족을 사랑해주시는 본당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정수진 마리아
(Con Xinh Chan Thanh Cam On)



2014년 방한한 베트남 빈흥성당의 호민뚝언 바오로 신부와 절두산 성지에서(왼쪽부터 시어머니 김순심 율리아, 정수진 마리아, 딸 유다)

행복대학 성지순례



당진 신리성지의 소녀상 앞에서(2015년 9월 18일)